

보도해명자료 (‘18. 1. 2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올해 수출 증가율 15.8% → 4%대로”

(‘18. 1. 2.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□ 올해 수출 증가율은 15.8% → 4%대로 작년 대비 급격한 추락 예상

- 환율 변동,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한국 수출도 경착륙(급격한 하락)할 가능성이 높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‘17년 수출은 사상 최대치(5,739억불, +15.8%)를 기록하였으며, ‘18년 4% 증가시 5,969억불로 “최대치를 재(再)경신”하는 것이므로, 경착륙이나 급격한 하락이 결코 아님

- 수출 4% 이상 증가 목표치는 환율 변동, 보호무역주의 확산, 주력 업종 해외생산 확대 등 대내외 여건 감안시 매우 도전적인 수치임

□ ‘18년 수출 전망치(4% 이상 증가)는 업종별 협회로부터의 수출 전망 의견 수렴(‘17.11~12월), 계량모형을 통한 추세 분석, 전문기관과의 간담회(12.19일)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도출됨

- 우선, 업종별 협회로부터 수출 전망 의견 수렴 결과, 선박·철강 등 품목의 수출 부진이 예상되어 ‘18년 수출은 전년대비 $\Delta 1.9\%$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음

- 또한, 환율·유가·세계수입물량 증가율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*를 반영한 계량모형 추세분석 결과,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 ‘18년 수출은 전년대비 $\Delta 2.0\%$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

* 환율, 유가, 세계수입물량증가율, 中 산업생산지수, 韓 실질 GDP 증가율 등

- 한편, 전문기관 중 한국은행의 경우는 ‘18년 수출은 ‘17년 대비 3.2%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음

□ 상기한 업종별 협회 전망치($\Delta 1.9\%$), 계량모형 추세분석 결과(보수적 시나리오 $\Delta 2.0\%$), 전문기관 전망치(한은, 3.2%)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% 수준으로 전망치가 도출됨

⇒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담아 4% 이상 증가로 최종적인 ‘18년 수출 목표치를 설정

※ 문의 : 수출입과 이원희 과장 (044-203-4040)

정민규 사무관 (044-203-4041)